

2월의 기도



“아훼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 DCEM총재 조목사님의 해외성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야기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7년 2월 8, 9일 태국 방콕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주강사로 초청하여 '태국을 위한 축복과 기적성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끼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정대원목사),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나인규,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원소선, 정경자,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최인규,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동굴과 터널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맥아더 장군은 동경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데 이렇습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즉 종교의 문제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은 종교 문제이므로, 종교가 바로 서야 양심이 바로 서고, 그럴 때 올바른 정치라고 정치가 올바르게 되어야 평온한 가운데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에는 종교가 있으며 종교가 바로 서야 위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종교를 바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동굴에서 나오는 문이 우리의 생활 속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 생활, 사업에서 고통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들어가면 못나오는 동굴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허덕이고 고통을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든지 동굴의 문이 열리면 터널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굴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동굴도 반드시 출구가 있는 터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가두어 놓을 동굴과 같은 감옥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에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유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터널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얻고 예수님을 더욱 튼튼히 붙잡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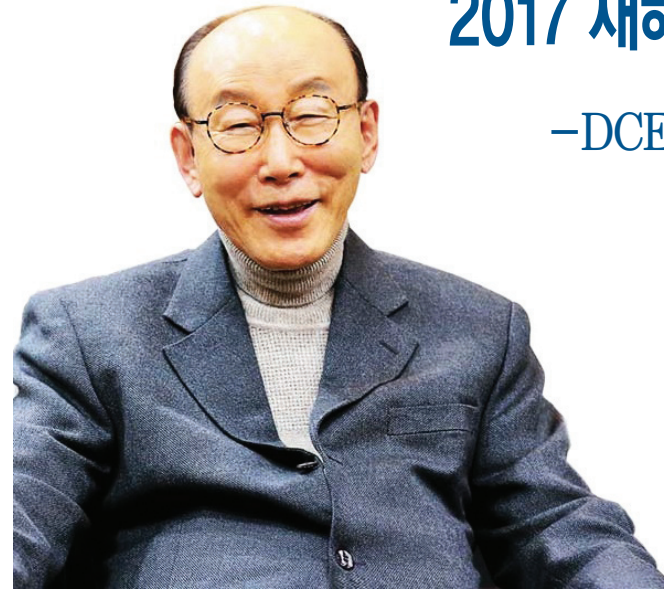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2017 새해 새소망 '꿈과 희망을 말하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신년 인터뷰-



“을 한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건강을 주셔서 과거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아프리카, 남미 일대를 다시한번 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1. 2017년 새해 성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 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어 전진하고 발전하고 승리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나가면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모든 불행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고 우리 국민 전체가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망 속에서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나가자는 것이다. 희망이 구체화되면 꿈이 되고 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2.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지금 한국은 촛불 행진으로 대단한 선행이 일고 있지만 촛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존재하는 국민들 전체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면 나라가 망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뭉치면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3.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을 갖기 위해 새해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요?

4차원 영성이라는 것은 3차원은 물질이고 4차원은 영적인 것인데 성령과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성령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대화하시므로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과 대화의 질이 되고 꿈과 환상에 대해서도 대화가 되는데 천국은 4차원의 대화이고 믿음도 4차원의 대화이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창조적인 언어의 고백도 4차원의 언어가 된다. 그러므로 4차원의 언어를 우리가 알고 사용하면 성령께서도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믿음이나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4차원의 언어를 사용하면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4. 요즘 젊은 세대들이 대학진학, 취업,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 포기

하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한국은 직장 구하기가 힘들며 사회생활이 공핍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직장이 생기고 살기가 아름다워지고 꽃같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과 더불어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요셉이 성령과 더불어 꿈을 꾸고 나갔던 것처럼 성령과 더불어 꿈을 꾸고 성령과 더불어 믿고 성령과 더불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사로잡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교회에 잘 나오기 바란다.

5. 목사님께서 어떤 꿈과 어떤 계획으로 2017년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시작했으므로 꿈을 놓쳐버리면 내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새해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건강을 주셔서 과거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아프리카, 남미 일대를 다시한번 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줄 믿는다.

새해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창세기 1장 1~5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2017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7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가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 새해, 새 생각으로 출발하자

새해에는 새 생각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말고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생각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교육의 선구자 호레이스 만은 습관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매일 습관이란 밧줄을 짜고 있다. 이렇게 짜인 습관은 절대로 파손되지 않는다” 매일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 생각은 저절로 부정적인 곳으로 넘어가서, 악으로 점령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걱정의 전원을 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스위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

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모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젠 끝장이다’라는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맡기면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니다. 반쪽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같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2. 분명한 꿈을 가슴에 품자

분명한 꿈이나 환상을 가슴에 품고 열화와 같은 목표물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지난 해, 한 아기 엄마가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기가 청력에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상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나질 금식하며 40일 새벽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 새벽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분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아기 엄마에게 공무원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일하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7급 공무원이라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기 엄마는 매일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화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삶에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시편 103편 1절로 5절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화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난날의 일이라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살게 해주신 은혜를 고맙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긍정을 취하고, 부정적인 원망을 내 마음에 밀어내자’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지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자

우리는 창조적 입술을 사용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차원의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은 땅이 3차원 세계라는 것을 압니다. 물질적인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위에 운행했습니다. 차원이 높기 때문입니다. 3차원의 세계 위에 4차원의 성령이 운행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창조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강하고 굳세게 입으로 시인하여 종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변화를 얻고, 신앙이 성장하여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4차원의 영성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4차원의 영이 바람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서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말씀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 내 영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 일합니다”

축복의 잔치 열린 빛고를 광주순복음교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열두 광주리 축복성회 인도



광주순복음교회의 초청으로 1월 12일 빛고를 광주를 찾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2017 열두 광주리 축복성회’를 인도했다. 열두 광주리는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담은 광주리(막 6:43)로 축복의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

축복성회 마지막 날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한상인 담임목사의 소개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등단하자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행복합니다”라고 외쳤다. 이번 성회에 지성전인 첨단성전과 장흥성전도 함께했다. 요한복음 16장 1~16절의 말씀으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성령과 동행하며 4차원 영성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Thailand)은 ‘자유의 땅’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주변국이 서구 강대국의 식민지였을 때 태국은 다행히도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인은 프라 사얌 데 바드히라즈라는 특별한 수호천사가 나라를 보호했다고 믿고 있으며, 그 결과 이 영적 존재를 금상으로 만들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그 금상을 숭배해 왔다. 이 나라는 영혼 유희, 신비 의식 그리고 불교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화에 묶여 있으며 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사회적인 응집력을 갖고 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자 사원의 나라이다. 주민의 95% 이상이 불교신자이다. 소승불교는 현대 태국의 동일성과 신념의 중심된 위치를 차지하는 태국의 국교이다. 달력, 풍습 등도 불교적인 것이 많다. 실제로, 태국의 불교는 서서히 발전하여 동물숭배나 조상숭배로부터 기원된 지역 종교들을 포섭하였다. 국왕을 비롯하여 남자라면 일생에 적어도

다. 조용기 목사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은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신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 중심의 생각으로 마음이 충만하면 성령이 생각을 따라 역사해 주신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과 일하신다”면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사를 한다면 “팔릴지어다”라고 하고, 사업을 하면 “번창하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일들이 쌓일 것”이라고 축복했다. 성도

불교의 나라 태국



한번은 절에 들어가 삭발하며 3개월 정도의 수도과정을 지내고 오는 것도 의무적이다. 이른 새벽이면 누런 법복을 걸친 탁발 승려들이 사원을 나서 행렬을 시작하고 신도들은 정성스럽게 이들에게 공양을 바친다. 태국의 승려들은 어느 나라에서 보다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

태국의 기독교 인구는 아직까지 1%에 불과하다. 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도록 한달에 한번 영적 돌파구를 위한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다.

태국 목회자들이 한국을 방문 할 때마다 이 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에는 전국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를 나타내는 십자가가 많은데 태국에는 집집마다 사당이 있고 불상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태국은 브라만교와 소승불교의 영향으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제도가 엄연

들은 주여 삼창 후 통성기도를 한 후 조용기 목사의 인도로 신유기도를 받았다.

시가지 시계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는 축사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별을 성도님들도 보셨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꿈은 열두 바구니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8월 한상인 목사가 제10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있으며 호남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김기수 장로회장은 대표기도를 통해서 “교회 건물이 부도가 났을 때 받은 조용기 목사님의 도움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기도했다.

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불모지인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오는 2월 8일과 9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하여 ‘태국을 위한 축복과 기적의 성회’가 타이랜드 크리스천 센터(Thailand Christian Center)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타이랜드 크리스천 센터는 2013년 완공되었으며, 태국의 복음화를 위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겠다는 담임목사의 철학을 담아 건축된 곳이다. 이번 성회는 DCEM이 주관하고 에즈라 미니스트리와 태국 기적의 성회 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여 열릴 예정으로, 마하촌 축복연합회와 비전 순복음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태국의 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참된 진리가 태국에 전파 되어질 때,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